

법무법인 린 김철수 변호사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일하는 이 시대 '부모변호사'



김철수 변호사는 부모변호사, 즉 부장검사 출신으로 형사는 물론 모든 분야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부모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로 성장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예로부터 용, 거북, 봉황과 함께 사영수(四靈獸)를 이루어 신성한 동물로 인식되어온 '기린'에서 영감을 받아 사명을 지은 '법무법인 린'은 초고속으로 성장하고 있는 로펌이다. 경기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 관련 분쟁에서 합의를 하고,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타다 프리미엄' 가입 택시기사 제명 무효 판결을 받는 등 굵직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법률 대리를 맡으면서 출범 4년 만에 1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국내 초대형 로펌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법무법인 린은 부장검사 출신 김철수 변호사를 영입하면서 성장 가도에 박차를 가했다. 부장검사 출신으로 형사는 물론 모든 분야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를 지향하는 김철수 변호사와의 협업으로 폭발적인 시너지를 만들어내겠다는 각오다. 민·형사 송무는 물론이고, TMT(Technology, Media, Telecommunication), 지식재산권, M&A, IPO, Wealth Management(상속, 세무), 금융, 부동산, 국제거래 등 종합적이고 원스톱으로 기업이나 개인이 원하는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로펌, 쉽게 말해 종합백화점과 같은 법무법인 린의 새로운 얼굴 김철수 변호사를 만났다.

Editor 이지훈

사 람은 누구나 계기가 있다. 어떠한 계기에 의해 직업을 바꾸기도 하고, 국가를 바꾸기도 한다. 인생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데는 분명한 계기가 있고, 개인의 신념과 철학에 따라 그 방향성이 좌우되기 마련이다. 법무법인 린의 김철수 변호사 역시 특별한 계기에 의해 새 인생을 사는 인물이다.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를 시작으로 여주지청, 강릉지청 등을 거쳐 법무부 국제법무과장,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 등을 역임하는 등 명예로운 삶을 살아왔던 그는 가족을 위한 삶을 선택했다. 아내와 딸의 건강 악화로 인한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전부인 줄 알았던 검찰청을 떠나 국내 최대 규모의 로펌에 입사해 제2의 인생을 시작한 것이다. 변호사가 증명하는 증거를 바탕으로 결론을 도출했던 검사에서 승소를 위해 명확한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 변호사가 됐다. 3년 6개월 만에 180도 바뀐 일상을 살고 있지만,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선택이기에 무척 행복하다고 한다. 김철수 변호사는 자신의 선택과 의뢰인의 사건에 최선을 다하고 책임지는 인생을 살고 있다.

의뢰인과 단독방 개설하는 변호사로 고객 만족 추구

법무법인 린은 특별하고 차별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 별산제 법인에서는 자신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민·형사 송무에 그쳤는데, 린에서는 테크, 지식재산권, M&A, IPO, 상속, 금융, 부동산, 국제거래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룬다. 각자의 영역에서 충분한 경험을 쌓아온 변호사들이 포진되어 있다는 것이 가장 뚜렷한 경쟁력이다. 김철수 변호사 역시 그 일원 중 한 명이다.

“개인적으로 형사 사건은 검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소통의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저의 경력이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검사로서 20여 년 근무하면서 증거를 적극적으로 찾아서 사건을 풀어나가는 훈련이 되어 있

어서인지 민사나 형사 공판 단계에서도 적극적인 변론으로 좋은 결과를 많이 내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사로서 수사 검사로서 주로 일했지만, 법무부 대검에서 여러 차례 일하면서 사법부 외에 행정부, 입법부 공무원들과도 협업을 많이 해왔고, 특히 주LA총영사관에서 파견 나가 영사로 일하면서 현지 교민이나 상사 주재원분들과 교류했던 것이 변호사로서 일하면서 네트워킹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소통’은 검찰 내부 인원들과의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다. 사건을 믿고 맡겨주는 의뢰인과의 긴밀히 커뮤니케이션하며 승소를 향해 한 발짝 다가간다. 김철수 변호사만의 영업 전략이기도 하다.

“고객들은 변호사가 자기 사건처럼 생각하고 해주기를 원합니다. 사건을 맡으면 저 혼자 해결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어시스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데, 의뢰인과 어시스트 변호사가 포함된 단독방을 개설해 수시로 상호 교류합니다. 서로 궁금한 것들을 격의 없이 묻고 답하다 보면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죠. 긴밀히 소통한 결과가 승소로 이어지면 고객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관계가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죠.”

부모변호사가 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김철수 변호사는 아내와 딸의 건강이 악화하면서 검사 월급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금액의 병원비를 감당하기 위해 검찰청 문을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유학을 두 번이나 다녀올 정도로 국제업무에 촉망받는 검사였다. 이제는 부모변호사, 즉 부장검사 출신으로 형사는 물론 모든 분야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부모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로 성장하려고 한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다.



“월급을 받는 생활을 20년 넘게 하다가 자영업자인 변호사가 되니 처음에 걱정이 많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신건을 어떻게 수임하나 하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농부가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현재 하는 사건을 열심히 하고, 온·오프 라인으로 네트워킹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그다음은 누군가가 도와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 시작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였다. 5개월 만에 법무법인 문평으로 이직해 3년 동안 근무했다. 그로써는 승부수를 던진 셈이었다. 병원비를 감당하기 위해 월급제 로펌이 아닌 별산제 로펌을 선택했고, 수임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 분야를 민·형사 송무에서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점을 고민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후 법무법인 린으로 이직해 조금 더 넓은 시야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다.

“김찰에서 비교적 국제 업무를 많이 했기에 김앤장에 입사하

게 되었습니다. 병원비가 계속 필요한데 김앤장 월급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워 별산제 로펌에 가서 승부를 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제계 사건이 올지 보장이 안 되는 상태에서 새로 서초동 변호사로 일을 시작하게 되니 걱정이 많았습니다. 별산제 로펌인 문평에서 3년간 주로 민·형사 송무 업무를 하였는데 다행히도 많은 분이 도와주시고 저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비교적 무난하게 변호사 업무를 했습니다. 다만, 대학 동창 회계사 친구 중에 M&A를 도와줄 수 있는지 질문을 받았을 때와 같이 제가 제공할 수 없는 법률서비스 분야에 대한 제안을 받고 그런 기회를 놓치는 것이 참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이고 윈스톱으로 고객이 원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규모의 로펌으로 옮겨서 제가 제공하는 법률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하고 싶어서 린으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즉 송무 위주 법률서비스 제공에서 송무와 자문 법률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기에 충분한 플랫폼인 린으로 옮긴 것입니다.”

기존에 몸담았던 법인에서는 제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민·형사 송무에 그쳤다면, 린에는 테크, 지식재산권, M&A, IPO, 상속, 금융, 부동산, 국제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이 많은 변호사들이 포진되어 있어 그들과의 협업을 통해 자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린에 합류하기 전 별산제 로펌에서는 혹시 누가 M&A건을 의뢰해도 할 수가 없었는데 여기 린에서는 경험 많은 변호사님과 팀을 이뤄서 할 수 있으니 그런 형태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을 듯합니다.”

‘부모변호사 김철수 TV’ 개설, 유튜브 하는 변호사로

앞서 언급했다시피 변호사는 검사와는 달리 네트워킹이 생명이다. 승소 확률을 높여 많은 의뢰인을 확보하는 것, 증거를 수집하고 승소하기 위해 다양한 인맥을 구축하는 것이 변호사가 갖춰야 할 경쟁력 중의 하나다. 혹자는 법률 지식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한다.

“변호사 업무를 3년 조금 넘게 해보니 천수답 구조를 어떻게 관계형 구조로 만드느냐가 핵심입니다. 사건이나 자문을 안정적으로 수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인데 결국은 네트워킹을 넓히는 것이 해결책이 됩니다. 저는 온·오프 라인으로 네트워킹을 하고 있는데 1년에 한 과정씩 최고경영자 과정을 들으면서 오프라인 네트워킹을 확대해 오고 있고, 유튜브,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을 통해 제가 대리했던 사건 등을 소개하면서

온라인 네트워킹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변호사는 자영업형 변호사로서 살아남기 위해 오프라인에서의 네트워킹만큼이나 열심히 온라인에서도 활약하고 있다. 유튜브 ‘부모변호사 김철수 TV’는 개국한 지 5개월가량 매주 1개 씩 약 20개의 에피소드를 공개했다. 자신이 맡았던 변호 경험을 불특정 다수 독자에게 공유하고, 곤경에 처한 이들에게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면서 신뢰를 쌓고자 하는 전략이다.

“발품 팔아서 변호사를 찾아다녔던 과거와 달리 최근엔 온라인과 SNS, 유튜브를 통해 변호사의 역량을 판단하고 의뢰하는 경향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유튜브를 시작했죠. 일주일에 1편 씩 에피소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구독자층이 다른 네이버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도 같은 내용을 올려서 다른 매체의 구독자들에게도 어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여! 인생에는 다양한 길이 있다”

김철수 변호사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흠뻑 받고 자랐다고 한다. 학교 성적이 좋으니 당연히 부모님의 기대를 많이 받았고, 법조인이 되길 바라는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해 서울대학교 법대에 합격했다. 결혼 후에는 늘 가족들을 지키기 위한 길을 걸어왔다. 그를 열심히 일하게 하는 원동력이 곧 ‘가족’인 셈이다.

“몇몇 분들이 회사를 오픈하고 난 후의 목표를 묻습니다. 별것 아닙니다. 변호사 업무를 잘하는 것, 제 건강관리를 잘하면서 가족들을 잘 건사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가족들을 잘 챙겨서 아이들이 자라는데 거름이 되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생각하면 손해도 감수하게 된다. 지금의 적은 손해가 훗날 아주 큰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

이다.

“의뢰인들과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소탐대실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죠. 수임료를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애를 썼는데,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많은 사람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게 돈을 버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손해를 봐야 오래 갑니다.”

그의 좌우명은 ‘때 되면 먹고 때 되면 자자’다. 규칙적으로 잘자는 사람이 일도 더 잘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일을 하다 보면 생활 습관에 밸런스를 놓칠 때가 있는데, 최대한 식사 때 끼니를 거르지 않고 충분히 자려고 한다.

“스트레스를 잘 해소해야 합니다. 노래방에 가서 노래 부르거나 노래 경연 프로에서 노래를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극장에서 영화를 보거나 골프장에서 운동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기도 합니다. 업무적인 스트레스를 주로 예체능 쪽으로 풀고 있습니다.”

서글서글한 인상에 나긋한 목소리, 친화적인 성품은 그를 더욱 돋보이게 한다. 법조인을 꿈꾸는 후배들에게 조언을 건넬 때도 그는 기쁨이 있었다.

“어떤 경기를 하던 물을 잘 아는 게 중요합니다. 물을 제대로 알아야 게임을 잘 즐길 수 있듯 우리 인생의 물을 잘 알아야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물은 곧 법이죠. 법을 잘 알면 여러 분야에서 일할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조인을 꿈꾸는 후배들이 있다면 추천하고 싶습니다. 다만 요즘 한국 사회가 너무 경쟁이 심하니 청년 세대들이 힘들어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딸에게도 조언하는 것 중 하나가 건강관리를 잘하고 언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해외 진출도 염두에 두라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다양한 길이 있으니 잘 모색해서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PROFILE

주요 학력 및 자격

△1988년 광주숭일고등학교 졸업 △1995년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졸업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 합격 △1998년 사법연수원 수료(제27기) △2004년~2005년 미국산타클라라대학 방문학자과정 △2010년~2011년 영국 국제비교법연구소 방문연구자 과정(~2011년)

주요 경력

△1998년 해군법무관 △2001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2003년 수원지검 여주지청 검사 △2005년 법무부 검찰3과 검사 △2008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2010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2011년 춘천지검 강릉지청 부장검사 △2012년 주LA총영사관 법무협력관 △2014년 법무부 국제법무과장 △2016년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2부장검사 △2017년~2018년 대검찰청 검찰연구관(국제협력단 단장) △2018년 변호사 개업(서울회) △2018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9년 법무법인 문평 대표변호사 △2019년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2022년~현재 법무법인 린 변호사